

# “해방 후 단절된 사실주의 미술사 공백 채워”

변월룡 첫 회고전  
덕수궁 미술관서  
러시아 리얼리즘 계승  
북한 현대미술 토대

2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르보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근대미술거장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백년의 신화:한국근대미술 거장전 시리즈'의 첫번째 전시로 북한 변월룡(1916~1990) 회백에 대해 설명했다.

마리 관장은 “변월룡의 작품을 통해 사실주의 회화가 한국 현대회화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전시를 성사시킨 변월룡 작가의 유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낯선 변월룡 화백은 1950년대 초 러시아(소련) 최고 미술교육기관인 레핀 아카데미 교수로 재직하면서 평양미술학교 설립에 관여하고 북한 현대미술의 토대를 러시아 리얼리즘 미술로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해주에서 태어난 변월룡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옛 레닌그라드)에서 미술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화가이자 교육자로 일생을 보낸 고려인이다. 1953~54년 1년 3개월간 소련 문화부의

명령에 따라 북한에 머물면서 그림을 가르쳤다. 그는 전쟁으로 평북 용천에 피난와 있던 평양미술대학 교수들을 지도하고 러시아 예술아카데미 시스템과 교과과정을 모범 삼아 교과과정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소련으로 돌아온 후 재방북하려 했으나 김일성 위상화가 진행되면서 재입국이 거절돼 러시아에 머물렀다. 이후 소련의 붕괴를 보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결국 냉전의 종주국 소련에서 냉전의 시대만을 살다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 전시는 냉전 종식 후에도 한반도에만 여전히 존재하는 철의 장막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변월룡’이라는 작가를

소개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3월 개막하는 전시를 위해 러시아에서 내한한 변월룡의 차남 펜 세르게이와 장녀 펜 올가는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규모 회고전을 전상에 계신 아버지가 보고 있다면 놀라워하면서도 기뻐하실 것”이라면서 “우리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버지는 생전 월북화가인 문학수(1916~1988)화백과 친분을 유지하며 북한 현대미술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레핀 예술아카데미 출신인 이들은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화가로 활동 중이다.

전시장은 마치 ‘민중미술’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 북한의 ‘모내기’를 담은 그림은 신학철의 ‘모내기’를 연상시킨다. 또 ‘관문잡에서의 북한 포로 송환’ 그림은 역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 작품에서는 북한 포로들이 “미국이 준 옷을 입고 조국으로 갈수 없다”며 옷을 벗어버렸다는 일화가 전해지는데, 실제로 그 광경을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국에서 일어난 전쟁의 비극을 거침과 세밀함으로 뽑아낸 검은색의 예치 작품도 강렬하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은 ‘변월룡 전을 시작으로 이종삼전(5~9월), 유영국전(10월~2017년 2월)을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시는 5월 8일까지 3000원. 02-2022-0600. /정해은 기자



## 연극 ‘킬미나우’ 라이선스 초연

캐나다 극작가 브레드 프레이저(57)가 2014년 발표한 최신 연극 ‘킬 미 나우(Kill Me Now)’가 라이선스 초연한다. 성(性)과 장애, 죽음 등 쉽지 않은 주제를 솔직하고 대범하게 풀어놓은 작품이다.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들과 그를 키우는 아버지를 통해 현실적인 질문을 던진다.

선천성 장애로 평생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고 싶은 17세 아들 ‘조이’, 그 아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헌신했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는 아버지 ‘제이크’가 겪는 갈등을 그린다. 장애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희생과 헌신 반대급부로 부딪히는 욕구를 다룬다. 이를 통해 삶과 죽음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한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과 그 안에서 드러나는 복잡한 심리를 표현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포인트다.

장애 아들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 ‘제이크’는 연극 ‘살짜 넘어갔다’가 연어였다. M. 버터플라이,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등 장르를 넘나드는 이석준이 연기한다. 드라마 ‘비밀 49일’ ‘동아’와 연극 ‘프라이드’의 배우반이 같은 역에 더블 캐스팅됐다.

선천성 장애아 ‘조이’는 뮤지컬 ‘그날날’, 연극 ‘프라이드’를 통해 무대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룹 ‘클릭비’ 출신 오종혁과 연극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카포네 트릴로지’, 뮤지컬 ‘로키’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윤나무가 교체 출연한다.

제이크의 연인 ‘로빈’은 이지현, 제이크의 여동생이자 조이의 고모인 ‘트와일라’는 이지현이 연기한다.

/정해은 기자

## 지난해 언론 관련 피해구제 77.9%

### 직권조정결정 비율 증가 영향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2015년도 한 해 총 5227건의 조정사건 중 77.9%인 3797건이 정정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은 3319건으로, 전년도 일반사건 2931건에 비해 13.2% 증가해 일반사건 수반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권조정결정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반사건(3319건) 가운데 직권조정결정이 이뤄진 사건은 315건(9.5%)으로, 이 중 양 당사자가 결정에 동의한 사건은 214건(67.9%)이었다. 직전 3년간(2012년~2014년) 직권조정결정 비율과 동의율의 평균치가 각 6.4%, 51%인 것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폭을 보였다.

직권조정결정 사건 비율 및 동의율이 증가한 것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의지와 분쟁을 소송 전에 조기 해결하는 수단으로써의 언론조정 제도에 대한 당사자의 높은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이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을 경우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문 게재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2015년도에도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총 5227건 중 62.9%).

그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뉴스 소비 트렌드가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언론피해사태도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언론피해 상담

시 기사에 달린 댓글과 기사를 퍼내온 글로 인해 더 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아날로그 미디어 시대 법적인 현행법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태를 폭넓게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언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걸맞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한 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총 5227건의 처리결과를 조정성립 940건(18.0%), 조정불성립결정 710건(13.6%), 직권조정결정 319건(6.1%), 기각 322건(6.2%), 각하 32건(0.6%), 취하 2904건(55.5%)이다. /정해은 기자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 선정되면 1000만원 안팎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4일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와 함께 2016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마을·지역·전국 단위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문화 활동을 확산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체부는 우리 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단위의 생활문화동호회의 발표 및 교류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 역량 강화 워크숍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40개 내외의 프로그램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규모와 내용에 따라 1000만원 내외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생활문화시설, 동호회 문화기획자 등 다양한 주체의 지속적인 관계망(네트워크) 기반 지원을 통해 ‘광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도 함께 지원한다. 장르별 교류의 장과 지역별 생활문화동호회 교류의 장으로 나누어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2500만 원 내외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 무주 산골영화제 홍보 블로그 서포터즈 모집

설렘, 울림, 어울림의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네 번째 영화 소풍 길을 함께 즐기고 일일 블로그 서포터즈 산골 블로거를 모집한다.

‘산골 블로거’로 선발되면 영화제 기간 전에는 영화제의 중요 정보들을 개인 블로그를 통해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되고,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를 관람하고 각종 공연 및 이벤트들에 체험한 후, 상영작리뷰 및 참가후기들을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산골 블로거’는 블로거를 운영하고 무주산골영화제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가능 하지만, 블로그를 통해 사전 홍보가 가능해야 하고 영화제기간 최소 하루 이상 방문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15일간이며 합격자는 3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발된 ‘산골 블로거’에게는 영화제 기간 숙박할 수 있는 1박 숙박권과 영화제에서 판매될 기념품 패키지가 제공된다.

무주산골영화제는 오는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며 ‘산골블로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무주산골영화제 홈페이지 및 사무국 홍보마케팅팀(063-220-82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3월 3일>

### ▷쥐띠

46년생: 금전문이 살기엔 띠고 돌아오는 시기.  
60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해질 수 있는 운.  
72년생: 모임을 하거나 타인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배가 될 것이다.  
84년생: 뜻밖의 수확이 있으니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따른 것이다.

### ▷소띠

46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 있고 실물수를 주의하라.  
61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활발적으로 처리하라.  
73년생: 평소 익숙했던 것이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운.  
85년생: 작은 일은 성취 가능하니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 ▷호랑이띠

50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운.  
62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위험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지나친 욕심은 금물임을 명심하라.  
86년생: 신체적 컨디션이 좋지 않은 운이니 무리한 운동과 활동은 피하라.

### ▷토끼띠

56년생: 운서로 인한 금전지출은 오히려 다른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  
68년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  
75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이 따르는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구슬수가 따른다.

### ▷용띠

52년생: 아랫사람에게 경시가 따르는 운이다.  
64년생: 먼저 베풀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니 감정에 빠져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88년생: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마라, 상대와 반목만 뿐이다.

### ▷범띠

53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65년생: 감정에 치우치면 일을 그르치게 되니 매시그 냉정하게 처리하라.  
77년생: 다른사람의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89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고있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 ▷말띠

54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  
6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  
78년생: 어려운 일이 있다면 자존심을 버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  
90년생: 미뤄왔던 공부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운이니 적극적으로 시작하라.

### ▷양띠

56년생: 금전적으로 기운이 좋은 운.  
67년생: 사소한 일에 시비그 거는 사람이 생기니 마음을 다스리고 충돌하지 말아야 하겠다.  
79년생: 무리한 투자는 금하고 때를 기다려라.  
91년생: 어려움이 있을때는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 ▷원숭이띠

55년생: 손아래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이 생기니 권위적인 언행은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만든다.  
69년생: 물다리로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갈 때.  
80년생: 좋은 일하고 할 말 있는.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니 위험을 삼가는 것이 좋겠다.

### ▷닭띠

57년생: 구슬수와 시비수가 따르니 불필요한 언행은 피하라.  
63년생: 먼저 손해본 보편 후에 이득을 얻게 되니 커피라도 대접하라.  
81년생: 미뤄왔던 문서 정리나 문서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93년생: 정신이 맑지 않은 운.

### ▷개띠

49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  
59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다.  
70년생: 모든일을 혼자서 감내해야 하니 좋은 결실을 맺는다.  
82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오히려 오히려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돼지띠

47년생: 가족들의 불화가 생기는 때.  
59년생: 번고고 하지 말고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여성은 발돋움 다니면 불행일이 발생한다.  
83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남성은 일로 인해 힘들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